

광주·전남 시간당 50mm 물폭탄에 ‘정전·침수’

곡성 155.5mm...광주 6월 일·시간당 강수량 기록 경신
하천범람·도로침수·정전 등 62건...주민 대피 소동도

광주·전남 지역에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전과 침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정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에 100~16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광주·전남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21일 오후 늦게 모두 해제됐다. 누적 강수량은 전남 곡성이 155.5mm로 가장 많았다. 영광 155mm, 구례 151mm, 광주 북구·전남 담양 137.5mm, 나주 135.5mm, 광주 남구 131.5mm, 함평 130mm, 광주 광산구 125.5mm, 동구 123mm, 전남 화순 119.5mm 등을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담양 47.5mm, 구례 42.5mm, 곡성 39.5mm, 광주 39.1mm, 나주 다도 39mm, 함평 월야 34mm, 무안 남악 32mm 등이었다. 특히 광주는 21일 하루 동안 133.5mm, 시간당 39.1mm의 강한 비가 쏟아져 6월 하순 일 강수량과 시간당 최대 강수량 극값을 경신했다.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총 62건(광주 27건·전남 3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나무 쓰러짐이 39건(광주 21건·전남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주택 침수 10건(광주 4건·전남 6건), 토사 낙석과 벽 흔들림, 상가 건물



지난 21일 오전 12시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에 장맛비에 쓰러진 나무가 아파트 단지 전선을 건드리면서 정전이 발생. 소방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배수 지원 등 기타 13건이었다. 광양·담양·곡성·구례·영광·장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 담양·곡성·장

성 14개 마을 55세대 79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22일 새벽에 귀가하기도 했다. 담양군 창평면에는 하천 범람과 주택 침수가 이어졌고, 마을 길과 논 등에는 물이 찼다. 배수작업에 나선 소방당국 등은 재발방지를 위해 제방을 쌓았다. 현재까지 피해는 무안 현경면 일대 농경지 3ha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도로침수, 수목 전도, 맨홀 이탈 등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서구 운천근린공원에선 빗물에 휩쓸려 토사가 유출됐고, 북구 효령동과 광산구 산월동에선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이탈했다. 남구 봉선동에서는 장대비에 쓰러진 나무가 아파트 단지 전선을 건드리면서 6개 아파트 916세대에 정전이 발생. 승강기에 갇힌 주민 4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57

분 만에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다.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속출했다. 21일 오전 11시10분 전남 담양군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면에서 20대 초반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다. 같은 날 오전 8시45분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청안 방면에서는 B씨(29)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상청은 오는 24일부터 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5~30mm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린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면서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갑작스런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SOCIETY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5:19 달출 02:42
예보 19:51 달진 17:45



광주	☀️	20~32
목포	☀️	19~29
여수	☀️	21~26
순천	☀️	20~29
구례	☀️	18~31
광주	☀️	18~29
임도	☀️	18~29
흑산도	☀️	18~25
고흥	☀️	17~29
진도	☀️	18~28

목포	미물(고)	11:19 / ---
여수	미물(저)	05:24 / 17:27
	미물(고)	06:56 / 19:47
	미물(저)	00:55 / 13:00

본촌산단·정보화마을 와이파이 설치 행방 묘연...

광주 북구 공공재산 부실 관리 ‘눈총’

광주 북구의 허술한 공공재산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구의회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관리부실 우려와 체계적인 물품관리 대책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북구와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11월 최신 ICT 기술 채택·이용시설 구축사업으로 본촌산업단지,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 2곳에 고성능 와이파이 장비 4대를 설치했다. 장비 설치에는 총 3066만원이 투입됐으며, 본촌산업단지 관리공단 옥상에 2대, 본촌산업단지 내 옛 로케트 정밀기계 사업장 1대,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옥상 1대가 설치됐다. 그러나 4대의 장비 모두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에 설치된 와이파이기는 청년창업성장지원센터 건설 공사로 인해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북구에서는 2곳에 설치된 와이파이 설치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옛 로케트 정밀기계 사업장에 설치된 와이파이기는 청년창업성장지원센터 건설 공사로 인해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북구에서는 2곳에 설치된 와이파이 설치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촌산업단지 관리공단 옥상의 와이파이 장비는 지난해부터 이뤄지고 있는 산단 리모델링 공사로 설치 운영

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손혜진 북구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실한 공공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철거된 와이파이 설치의 행방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며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의 대표적 사례다”고 꼬집었다. 북구 관계자는 “공사로 인해 와이파이 장비가 단순 철거됐다고만 생각했다. 장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공재산 등 물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와이파이 장비의 설치 비용(1대당 평균 766만원)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일 제품의 경우 175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서비스 거리가 2배 이상 높은 제품도 있었다. 손 의원은 “제품 비용보다 북구의 설치 비용이 부풀려진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정작 장비가 운영되지 않아 와이파이 설치 대비 효율성과 수요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구의 공공재산 관리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손 의원이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된 드론과 3D 프린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대서 의원은 양산동 주민자치회가 사들인 축산기계류의 묘연한 행방을 질타한 바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입시설명회 21일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김형래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상담교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조사자료 투명 공개 촉구”

사조위 국토부 독립 요청도...오늘부터 특별법 시행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15면 22일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게 열린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인도 정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787-8 드림라이너

추락사고에 대해 참사 3개월 안에 사고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참사 반년이 지났지만 처벌된 사람이 없다. 사조위는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도 예비보고서에 공개하는 비행자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가족을 무시하는 것이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돼야 한다”며 “사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인 만큼 사조위를 국토부 외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조사위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죽음을 진상 규명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제석산 구름다리서 또 추락사

만년필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 서 또다시 추락 사고가 발생. 22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55분 광주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제석산 구름다리는 1999년 도로 개설로 남구 봉선동과 진월동을 잇는 산등성이가 끊기자 등산로를 잇는 차원에서 설치됐으나 추락사고가 이어져.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추락 사고는 총 7건. 실제로 지난 4월 30대 남성이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2월에는 40대 남성이 다리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잇단 사고에 남구는 지난달 24일 관련 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공사 계약 의뢰, 추락 방지망 설치 작업을 추진 중.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광주·서구·국내·09·0005호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